## 환경관리센터 가동 진통…영광 '쓰레기 대란' 오나

주민들 가동 반발 쓰레기 반입 저지 건강·생활권 위협···즉각 폐쇄 요구 군수·의장 등 회의 합의점 못찾아

열병합발전소 논란 속에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환경관리센터 가동이 중단되면서 영광군에 쓰레기 대란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23일 영광군과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홍농읍에 있는 환경관리센터 인근 주민 200여명이 지난 18일부터 센터 앞에서 '환경관리센터 폐쇄와 주민집단이주'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모든 쓰레기 반입을 마고 있다.

환경관리센터에선 하루 5t 트럭 17대 분량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반입을 막아서면서 차량들이 종전에 사용했던 법성면 쓰레기매립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주병규 주민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영광군은 당초 홍농읍 환경관리센터에서는 하루 20t의 쓰레기만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생활에 피해가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37t의 각종 쓰레기를 반입해 소각이나 매립하면서주민들의 건강과 생활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어 "환경관리센터 인근지역 주민들이 동의한 영광 열병합발전소를 영광군과 군의회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을이유로 고형연료(SRF) 사용허가를 불허했다"면서 "열병합발전소의 SRF보다 더 주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생활에 피해를 주는 환경관리센터를 즉시



영광군 홍농읍 주민들이 환경관리센터 입구에서 집단 이주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폐쇄하고 주민들을 집단이주 시켜야 한다"고 강조 했다

주민들의 반발에 따라 지난 18일 김준성 영광군수와 군의회의장, 주민대책위 관계자들이 1차 회의를 갖고 합의점을 모색했지만 별다른 접점을 찾지못했다. 이에 따라 주민대책위와 영광군, 군의회는 조만간 2차 회의를 갖고 접점 찾기에 나서기로 했지만 원만한 해결책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환경관리센터 가동 중단과 SRF 사용허기를 둘러 싼 갈등이 장기화 될 경우 영광군에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영광군은 생활쓰레기 소각 시설을 현재 20t에서 40t으로 늘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달 31일 영광군과 군의회가 제동을 건 열병합발전소의 SRF 사용허가 문제가 해결이 안될 경우 매일 영광군 전역에서 발생하는 5t 트럭 17대 분량의 생

활쓰레기 등 37t을 환경관리센터에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현재 하루 평균 37.5t의 생활 쓰레기가 발생하고 이 가운데 소각으로 16t, 매립으로 19.5t, 재활용 방식으로 1t을 처리하고 있다"며 "당분간은 법성면 매립장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사태가장기화 될 경우 한계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 무안 관광정보 한눈에 모바일앱 서비스 출시

무안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개인이나 가족 단위 형태의 관광이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에 맞 춰 스마트폰을 통해 온라인 비대면으로 무안군 의 관광정보를 얻을 수 있는 모바일앱 서비스를 시행한다.

무안 스마트투어 앱은 이미지와 텍스트 중심의 단순 정보제공 앱과는 달리 사용자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특별한 조작 없이도 자동으로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해 여행지에 대한 흥 미를 유발한다. 현재 위치에서 원하는 목적지 길 찾기, 스탬프투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회산백련지, 황토갯벌랜드, 밀리터리 테마파크, 초의선사탄생지 등 무안의 대표 관광지를 비롯한 문화재, 전시관, 먹거리 등 200곳에 대한 음성안내 해설을 들을 수 있다. 주요 관광지 50곳은 4개 국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안내하고 있다.

무안군은 모바일앱 출시를 기념해 다음달 12 일까지 모바일앱 다운로드 이벤트를 진행한다.

앱 실행 후 사용자 이름과 핸드폰 번호 등 간 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고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 등 기념품을 제 공한다. 무안 스마트투어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 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안 스마트투어' 를 검색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 현대삼호중공업 봉사단 구례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



현대삼호중공업이 구례에서 수해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20일과 21일 양일간 자원봉사단 60여명을 구례군 마산면과 간전면 에 파견해, 침수 피해 복구 작업을 벌이는 한편 지원 물품을 전달했다.

봉사단은 큰 비로 침수된 논밭과 비닐하우스, 주택에 들어가 토사와 각종 쓰레기, 폐자재 정 리, 수로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봉사단의 한 관계자는 "현장에 와보니 수해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조그만 힘이라도 보탤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5일 그룹 1%나 눔재단을 통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10억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 황무지서 맨드라미 섬으로 신안 작은섬 병풍도의 기적

주민들 2만여㎡ 200만 그루 심어

신안의 작은 섬 병풍도가 맨드라미 섬으로 변 신했다.

병풍도는 주민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대부분의 논·밭이 황무지로 변하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 무런 쓸모 없던 땅처럼 황량했다. 한때 1000명이 살던 섬이었지만 지금은 300여명의 나이 많은 어 르신만 거주한다.

하지만 폐허로 변하던 병풍도를 아름다운 섬으로 만들자는 신안군의 제안에 주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팔을 걷어붙이면서 변화가 시작됐다.

군과 힘을 모아 황무지 2만여㎡를 가꾸어 전국에 서 가장 넓은 맨드라미 섬으로 탈바꿈시켰다.

마을 첫 관문인 보기선착장에서 맨드라미 꽃동 산까지 4km 구간에 맨드라미 꽃 정원을 조성했 다. 맨드라미 거리도 10km나 조성돼 있다. 12만㎡에 46품종 200만 본의 맨드라미가 화려하게 피었다. 병풍도 맨드라미 섬에서는 어릴 적 흔히 봐왔던 닭 볏 모양부터 촛불 모양, 여우 꼬리 모양 등 다양한 형태와 여러가지 색깔의 맨드라미를 접할 수 있다.

신안군은 꽃이 가장 아름다운 9월 11일부터 20 일까지(10일간) '섬 맨드라미 축제'를 개최할 예 정이지만, 코로나19로 여의치 않다.

축제 기간에 병풍도를 방문하면 추억의 봉숭아 손톱 물들이기, 고구마 수확체험 등 다양한 체험과 부녀회원들이 만든 맨드라미 차와 맨드라미 소금 도 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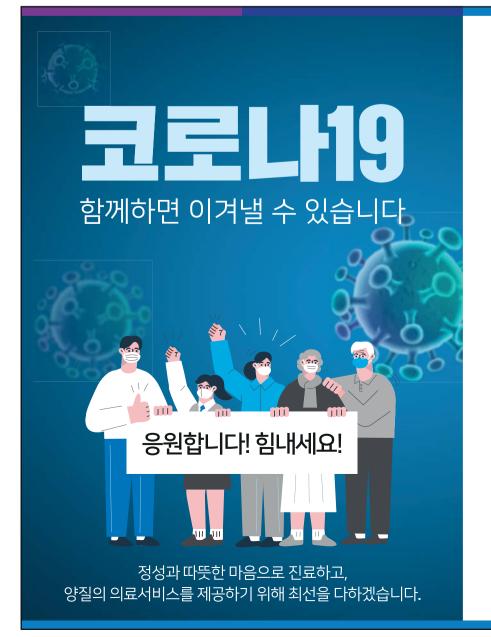
박우량 신안군수는 "코로나19 지역확산을 막기위해 지난 봄에는 정성껏 키운 100만송이 꽃을 제거하고 튤립 축제, 수선화 축제, 수국 축제 등 지금껏 모든 축제를 취소해 왔다"며 "맨드라미 축제도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노랑과 빨강색 바탕의 맨드라미가 병풍도를 물들이고 있다.

〈신안군 〉





조선대학교병원 CHOSUN UNIVERSITY HOSPITAL

■ 진료예약 062)220-3006, 3009 ■ 진료협력센터 062)220-3989

권역응급의료센터 062)220-3119 📕 홈페이지 https://hosp\_chosun\_ac\_k

병원장 정 종 훈

종합건강증진센터 062)220-3030







